후츠카이치 보양소의 위령과 전후 기억의 계승

GUO LIDONG (도쿄대학)

1. 시작하며

후쿠오카현 지구노시 제생회 병원 부지 내에는 낙태와 관련된 위령비가 존재한다. 이 곳은 과거 육군 소관이었던 후츠카이치 보양소로 불리던 시설로, 패전 후인 1946년 봄부터 조선인과 소련병, 중국인 등에 의해 강간 피해를 입은 일본인 여성 귀환자에게 낙태 수술 및 성병 치료를 행하며 낙태병원이 된 곳이다. 중절 수술을 금했던 당시에는 이는 초법적 조치에 해당했다. 그리고 후츠카이치 보양소는 일정 조건 하에 인공 임신 중절을 허가하는 우생보호법 시행에 따라 1947년 가을에 폐쇄되었다. 이러한 귀환자 낙태 시술은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였으나 후술할 다큐멘터리 '귀환항 낙태아의 노래', '귀환항 하카타만' 등의 방송 및 관련 저서 '낙태아의 보-귀환 고아와 겁탈당한 여성들의 기록' 이 출판되며 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지역 내 고등학교 교사 고지마 게이조가 사비로 위령비를 건립했으며 지금도 매년 5월14일이 되면 관계자들 참석 하에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후츠카이치 보양소를 다룬 1970년대 말 다큐멘터리 '귀환항 낙태아의 노래', '귀환항 · 하카타만'과 관련 저서 '낙태아의 보-귀환 고아와 겁탈당한 여성들의 기록'을 연구 대상으로 취급,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낙태아'라는 명칭을 통해 후츠카이치 보양소를 둘러싼 역사가 사회에 제기되며 해당 이야기가 사회에 수용되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사례로 듦으로써 전후 일본의 '패전' 역사 이야기에 관한 국가 및 사회, 개인 등 여러 주체의 역동적인 관계성과 내재된 문화 자원의 이용 방향이 한층 더 명확해지리라 전망한다. 다음으로, 후츠카이치 보양소 터에 존재하는 '인의 비'와 '낙태아 지장'의 건립 경위 및 '태아를 위한 위령제'의 기본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1980년대 전후 태아 공양의 유행과 해당 '민속'의 폴리티쿠스를 미시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패전의 체험에 대해 전하는 후츠카이치 보양소의 '태아 지장' 및 '위령제' 연구를 통해 현재에 이르는 패전의 체험 계승을 그려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를 통해 '낙태아'의 민속학적 연구 뿐만 아니라 전후 일본의 '패전'이라는 역사적 이야기에 관한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후츠카이치 보양소

후츠카이치 보양소는 현재의 후쿠오카현 지구노시 제생회 병원 부지 내에 존재했던 패전 후 귀환자를 위한 낙태 병원이었다. 이 후츠카이치 보양소는 하카타 귀환원호국에 있던 재외동포 원호회 구료부가 운영하고 있었다. 구료부의 전신은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 귀환을 주도한 경성 일본인 돌봄회(일본인 돌봄회) 내부에 1945년 10월11일 설치된 이동 의료국(MRU)다. 패전 전후로 일본인 피난민이 증가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교원 및 학생을 중심으로 경성에 구호병원 및 난민수용소 내 진료소를 개설했다. 이와 더불어 귀환 열차나 귀환 선내 의료 활동을 하는 MRU를 설치, 경성에서 부산을 거쳐 하카타에 이르는 귀환 루트를 따라 의료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들 조직 구축의 중심이 된 것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교수이자 문화인류학자 이즈미 세이치(1915~1970)이다. 구료부는 하카타역과 가까운 성복사 경내에 설치되어 성복병원 운영과 귀환선에 의사, 간호사를 파견했는

데 그 중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소련군 등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불법 임신' 여성 낙태 처치와 성병 환자 치료였다.

귀환자를 대상으로 한 낙태는 귀환항이라는 최전선에서 혼혈아 '처리'를 목적으로 후생성 중심의 행정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었다. 애초에 당시 인공 임신 중절은 국가 인구 유지를 위해 마련된 낙태죄에 저촉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금지된 행위였으며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오직 모체의 생명을 위협할 때 뿐이었다. 이 귀환 여성 '불법 임신'의 초법적 조치에 따른 낙태에 대해,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낙태를 용인한 이후 우생보호법이 제안됐다는 점에서 그 연속성을 알 수 있다.

3. 낙태아의 보

이 후츠카이치 보양소의 낙태에 관한 역사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전해져 온 이야기지만 1970년대 후반 RKB마이니치 방송의 TV국 디렉터였던 가미츠보 다카시는 후쿠오카에서 '후츠카이치 보양소'를 추적 취재하던 중 건강 프로그램 해설자이자 귀환자 고아 시설 '쇼보쿠료' 전 기숙사장이기도 했던 경성제대 출신 소아과 의사 야마모토 요시타케를 알게 되면서 그와의 교류를 통해 '후츠카이치 보양소' 비화를 접하게 됐다. 이후 가미츠보는 귀환항 낙태아의 노래(1977년), 귀환항 하카타만(1978년) 등 2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가미쓰보는 이들 작품 내용을 자신의 저서 '낙태아의 보-귀환 고아와 겁탈당한 여성들의 기록'을 1979년 출간했다.

이 '미즈고(水子)'라는 단어는 원래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기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낙태아'를 위로하는 태아 공양이 보급되며 낙태로 사망한 태아를 가리키는 뜻으로 변했다. 1970년대 대중매체를 통해 화제가 되면서 이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많은 종교시설에서 행해지는 태아 공양은 낙태로 인해 사망한 태아의 영혼 달래기 공양에서 시작되었다. 태아 공양이 상업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에는 이미 일반 대중 사이에서 낙태는 상당히 허용적인 분위기였고 피임 역시 널리 보급돼 있었다. 하지만 태아 공양이 등장한 시기는 매스컴이 명명한 오컬트 열풍과 겹쳤기 때문에 낙태의 각종 표상이 영화나 소설, 신문 잡지 상담 코너 등에 등장하며 여러 각도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당시 수시로 태아 공양을 실시하던 사찰을 기사로 다루며 특정 영적 능력자의 견해와 인식을 소개하는 주간지도 많았다. 센세이셔널리즘에 기반한 주간지는 낙태령이 가져올 재앙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을 자아내는 영적 능력자의 설명을 게재하고, 젊은 여성의 고통에 대해서는 가장 힘든 사연을 담았기 때문에 해당 주간지는 손쉽게 매출을 올렸다. 더욱이 이 시기는 산부인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모체 내 태아의 형태를 볼 수 있던 시기기도 했다. 이들 태아 사진은 낙태 당한 태아를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생명으로 인식시켜 낙태는 곧 살인이라는 논리를 시각적으로도 강화해 '태아'의 형태를 부여하는 데 분명한 기여를 했다.

이야기는 다시 후츠카이치 보양소로 돌아간다. 원래 만주나 한반도에서 하카타항으로 향한 귀환선에는 강간 피해를 입은 일본인 여성 귀환자들에 대해 '불행을 겪은 여성들에게 즉각적인 관심을!' 라는 선전문구로 시작하는 전단이 배포되었다. 여기에는 '불법적인 폭력과 협박으로 상해를 입었거나……이 때문에 신체에 이상을 느끼는 분들은……', '진료소로 수용해 건전한 몸으로 고향에 송환할 예정이니 선내 의사에게 관련된 신청을 하십시오' 등의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시 말해, 후츠카이치 보양소 낙태에 관련된 이 최초의 공적 문구는 '이상'한 신체를 '건전'한 신체로 바꾸겠다는 논리와, 후생성 측의 '혼혈아 처리' 및 '성병 만연 방지'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푸코적 생명관리정치의 정의를 주장

하는 국가주의적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등장한 태아에 관한 논리는 후츠카이치 보양소 사건에 대해 공적인 의제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왔다. 즉, 후츠카이치 보양소 내 낙태는 전후 일본 국가의 정의 차원에서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전쟁을 수행한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 있던 무서운 살인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그 속에서 피해 여성 및 복중 태아는 고통에서 해방되기는 커녕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가미츠보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전략] '전쟁은 끝났다느니,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등의 정치 상황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싶다. 전쟁에 희생된 민초는 아직도 상흔에 신음하며 견디고 있는데 정작 전쟁을 수행한 체제는 이를 모른 체 하며 살아 남고서는 이제는 다 끝난 일이라 단정 짓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중략] '낙태아의 보'를 집필하던 중, 초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천황 폐하의 아이' 라는 단어가 항상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아기와 낙태아- 이 낙태아들과 우리는 겨우 종이 한 장 차이로 연결되어 있던 것이다. 이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 패전 30년 후의 사회 상황에 대해 가미츠보가 생각한 것은 후츠카이치 보양소에서 목숨을 잃은 태아와 그의 어머니들을 위해 낙태아라는 이름을 빌려 이 참사를 기록해 남겨야 할 필요성이었을 것이다.

4. '인의 비'와 낙태아 지장상

후츠카이치 보양소 터에는 1981년 3월 후쿠오카 현립 슈유칸 고등학교 교사인 고지마 게이조가 사비를 들여 건립한 인의 비가 있다. 이 비석은 '지금은 각자 고향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그녀들이 30여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을 방문해 당시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예'를 전하듯, '낙태가 법으로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직을 걸고 행한' 의사 및 간호사들의 '인도적' 행위를 표창한다고 되어있다. 그 비문에는 의료인들의 인도적 행위에 대한 찬사와 사의가 담겨있는 반면, 성 피해여성이나 낙태 당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인의 비'가 건립됨에 따라 이듬해에는 제생회 후츠카이치 병원에서 '낙태아 지장'을 만들었다. 매년 5월14일 해당 장소에서 위령제가 거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위령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2017년 신문 기사를 참조해 설명하고자 한다.

> [전략] <당시로선 구해준 셈이지만, 그때는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여겼는데 돌이켜보면 지금으로선 참 안 된 일이었다……>[중략] 그 의사나 간호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함구하는 등 당시 상황을 알 길은 제한적이었다. [중략] 동회 '후츠카이치 보양소를 알리는 모임'은 5월 위령제 참가를 널리 호소하기 시작했다. 일찍이 보양소 터에 낙태아 지장을 세운 제생회 후츠카이치 병원 관계자가 주최한 위령제는 꾸준히 시행돼 왔으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계승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며 시모카와 마사하루 씨는 의지를 내비쳤다.

가토 기요후미의 구술 기록에 따르면 낙태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것처럼 일컬어지는 반면, 병실 내에는 낙태한 아이를 위해 매일 밤 향을 피우거나 밤마다 아기 환청에 시달리는 여성들도 존재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불합리한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상행동을 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한 의사나 간호사들도 어느 정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원래 국가의 생정치적인 논리 하에서 당사자 외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경험은 경험자에 의해서만 암암리에 구전되어 왔으나 낙태아 지장 건립 경험자들의 '낙태아' 위령제 참가 촉진 및 이로 인한 고통스러운 기억의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이 마련되면서 해방, 구제가 목표로 설정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5. 마치며

후츠카이치 보양소를 둘러싼 역사는 원래 국가의 생정치적 기조 지배 하에서는 오로지 경험자에 의해서만 사적으로 구전돼 왔다. 그러나 1970년대 낙태아 공양 풍조가 생기며 후츠카이치 보양소에 관한 다큐멘터리 및 서적이 가미츠보에 의해 등장하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이상 행동과 의사, 간호사들의 당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봉쇄돼 있던 과거 역시 되살아났다. 1981년에 세워진 '인의비'는 아직 국가 윤리의 '인도'에 대한 표창해 불과했지만 그 후 '낙태령 지장' 설립 및 '위령제'의 움직임이야 말로 '낙태아 공양'이라는 새로운 '민속'을 통해 후츠카이치 보양소 경험자를 구제하는 시도였다고 보인다. 또한 '낙태아' 위령의 장을 통해 이 역사적 이야기는 이제는 경험자 뿐만 아니라 전쟁 직후 격동의 시대를 겪지 않은 세대까지 공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參考文獻

鈴木由利子(2021)『選擇される命－子どもの誕生をめぐる民俗』臨川書店.

樋口恵子(2018)「引揚女性の「不法妊娠」と戦後日本の中絶自由」『戦争と性暴力の比較史へ向けて』岩波書店.

ヘレン・ハーデカー、塚原久美他譯(2017)『水子供養　商品としての儀式－近代日本のジェンダー／セクシュアリティと宗教』明石書店.

下川正晴(2017)『忘却の引揚げ史－泉靖一と二日市保養所』弦書房.

加藤聖文(2013)「引揚者をめぐる境界－忘却された「大日本帝國」」『社會の境界を生きる人びと－戦後日本の縁』岩波書店.

森栗茂一(1995)「水子供養の發生と現狀」『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57.